

'J프로젝트 구성지구' 10년만에 착공

부지 잔여금 918억 완납… 내년 3월 첫 삽

전남도 자본금 조기 사업 지원 비난도

땅값 문제로 지지부진했던 서남해 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구성지구(해남 산이면·21.87㎢) 개발 부지의 양도·양수가 마무리돼 사업 추진에 끝났다.

전남도는 22일 "구성지구 개발 시 행정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이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 부지 잔여대금 918억원을 납부해 간척지 양도·양수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땅값 완납에 따

라 공유수면매입 권리의무 양도·양

수승인을 전남도에 공식 통보했다.

농어촌공사가 주인인 간척지 땅을 사들여 사업을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참여 기업이 전체 부지 매입비 1020억 원 계약금 102억원만 납부한 뒤 땅값을 마련하지 못해 중단된 바 있다.

이번에 납부한 땅값 가운데 433억 원은 전남도가 20%를 투자한 서남해

안기업도시개발㈜ 자본금에서 충당했

으며 나머지는 참여 기업이 마련했다.

전남도는 부지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연내 구성지구 실시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내년 3월께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구성지구 공사는 1·2단계로 나눠 사업비 9000억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토지매입과 진입도로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골프장 건설, 레저주택, 골프빌리, 시니어 빌리지 조성과 호텔 및 리조트, 통합의학 병원 등을 건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900억원의 자본금 가운데 땅값 매입에 절반 가까이 들어감에 따라 향후 사업추진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도가 투자한 전담개발기업(SPC) 자본금의 일부를 구성지구 부지 매입비로 사용하면서 우회적으로 사업의 투자를 도와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전남도는 부지 매입비 미지급금 중 60% 가량을 전남개발공사가 대신 시주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반대 여론 부딪혀 중단했었다.

구성지구에는 우선 2개의 골프장과 한 개의 대중골프장(9홀)이 들어서게 된다.

한편 전남도의 역점사업인 J프로젝트는 법정다툼과 땅값 지급 문제 등으로 10여 년째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오펜록기자 kroh@

잇단 태풍에 내년 심을 벼 종자도 부족

광주·전남 벼 보급종 510t 모자라…과수농가도 비상

'볼리벤'과 '텐빈' 등 잇단 태풍으로 전남지역에 심을 벼 종자도 부족해 내년 농사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 태풍에 과일 나뭇가지가 끊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도 내년 농사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은 22일 "오는 12월 24일까지 2013년도 광주·전남지역 벼 보급종 공급 할 계획인데, 목표량보다 510t이 부족한 상태다"고 밝혔다.

애초 공급 계획량은 새누리벼 등 8 품종 4200여t이었지만 태풍피해로 보급종 종자 수확량 감소로 3690t만

공급하게 됐다.

국립종자원은 우선 공급업체에 1590t, 일반농가 1490t, 태풍피해 지역 610t을 공급한다. 부족한 종자는 다른 지역 잉여종자를 가져오거나 수매과정에서 최대한 증량 수매를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또 일반농가를 대상으로 12월 24일 까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나 농업 인상담소를 통해 종자 신청을 받는다. 신청할 수 있는 종자는 6개 품종 1490t으로 새누리 739t, 황금누리 375t, 일미벼 129t, 동진찰벼 159t, 영호진미 29t, 운광벼 59t이다.

신청된 종자는 2013년 1월 10일부

터 3월 29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과수 농가에도 비상이 걸렸다. 태풍으로 과일 나뭇가지가 대부분 끊겨 내년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가을에 배꽃이 피는 '불시개화' 현상마저 나타났다. 강한 바람에 잎이 모두 떨어져 과일 나무가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올 태풍 피해로 전남은 전국 쌀생산량 1위 자리를 3년 만에 충남에 넘겨줬다. 통계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지역을 쌀생산량은 70만t이며, 충남(78만4000t)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전남 쌀생산량이 다른 지역보다 적은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오펜록기자 kroh@



광주를 3D융합산업 메카로

광주를 3D융합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3D융합산업포럼'이 22일 광주과학기술협력센터에서 관련 기업과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광주시와 광주테크노파크는 이날 한국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진미디어텍 등 관련 기업 9개사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 1금융 광주銀·2금융 국민銀

44년만에 복수금고 전환

44년만에 복수금고로 전환한 광주시가 지역 대표은행인 광주은행을 제1금융으로 선정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시 복수금고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주은행을 제1금고로, 국민은행을 제2금고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1969년 광주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한 이후 지역은행 보호지원원에서 44년째 단수금고로 운영해 왔다.

이번 시 복수금고에는 광주은행과 농협, 국민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했다. 당초 출신한 지역 금융망 등을 감안하면 농협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광주는

금융망이 열악한 산간오지 등이 많은 전남과는 달리 도시지역인 만큼 외부적 요인보다는 내부적으로 높은 조건을 내건 국민은행이 2금고로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제1금고는 일반회계와 OCR(광학식문자판독) 고지서가 수반되는 13개 특별회계를 맡게 되며 시 전체 예산(2011년 기준) 3조5629억원 중 3조4776억원을 관리하게 된다. 제2금고는 각종 기금과 OCR 고지서가 필요없는 수질개선, 영산강살리기, 장기 미집행, 기반시설 등 4개 특별회계 853억원을 맡게 된다.

시 금고 약정기간은 내년부터 2016년까지 4년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영광원전 가동 즉각 중단"

광주 북구의회 성명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 심의

추기편입 면적 검토차 유보

광주 북구의회가 영광원전 1~6호 기의 가동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북구의회 의원 일동은 22일 성명서

를 내고 부풀 납품비리로 안전성이 의심받고 있는 영광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적 수준의 안전성이 확보된 이후 가동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

는 원전이 겹중도 되지 않은 부품을

10년 동안이나 사용해 왔다는 것은

원자력의 안전성이 허구였다는 사

실을 명백히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

했다. 또한 "지금도 영광원전은 방사

능 누출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강조

하지만 이미 원전에 대한 믿음은 상

실했고 주민 불안이 극도에 달했다"

고 덧붙였다. /최진표기자 cki@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무등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유보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날 오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광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추가 심의를 위해 의결을 유보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무등산의 도립공원 면적(30.23㎢)에서 주가편입되는 면적과 관련해 민원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립공원 지정 심의는 다음주로 유보한다"고 결정했다.

종교단체들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환경연합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는 문제는 문제지만 무등산의

면적 확장은 문제"라고 지적했다.